



메타버스서 만나는 순천시...행정 전반 전격 도입

경제·정주 등 8개 분야 기본계획
27일 정월박람회 홍보관 '첫 발'
9월 선포식... 본격 메타버스 운영

'가상공간에서 즐기는 순천만국제정월박람회.' 순천시가 행정 전반에 가상 공간인 '메타버스'를 도입한다. 그 시작은 2023순천만국제정월박람회이다. 순천시는 지난해 '메타버스 순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전격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기본계획에는 메타버스 서비스 구축을 위한 8개 분야 과제와 추진 방향 등이 담겼다. 순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화 서비스는 경

제·정주/안전·행정·소통·보건복지·교육·홍보·행사 등 8개 분야로 나뉜다. 시가 처음 구축하는 메타버스 환경은 다음 달 2023순천만국제정월박람회 홍보관이다. 홍보관은 오는 27일 네이버 제트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박람회의 핵심 공간인 그린 아일랜드와 가든스테이, 어싱길(맨발 걷기 길) 등을 온라인에서 만날 수 있다. 박람회 대표 캐릭터인 '루미오'와 '똥리엣'은 정원 곳곳을 안내하고 행사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다. 다양한 시정 소식과 시책을 알리는 역할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휴먼 시장'이 도맡는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출시하는 통합 플랫폼을 이용해 '순천형 일자리 통합 플

랫폼'을 연차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일자리 통합 플랫폼은 메타버스 기술을 기반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구인·구직관과 면접관, 소통관, 청년관, 기업 홍보관 등으로 구성된다. 이 플랫폼에서 기업과 구직자가 일자리 연계와 면접, 교육까지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완성할 계획이다. 시민과 함께 활용하는 메타버스 회의실을 구축하고, 복지회관과 보건소 등 건강관리 체험 공간을 제공하는 '헬스케어', 메타버스 기반 도서관이 핵심인 '교육관'도 마련된다. 오는 9월에는 '메타버스 순천' 선포식을 열고 본격적인 메타버스 운영에 들어간다. 선포식에서는 전문가 초청 기조연설과 종합 토

론, 교류 시간 등이 진행된다. 메타버스 인식 확산을 위해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벌여 메타버스를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선경 순천시 디지털정책과 메타버스티장은 순천시 "앞으로 경제, 교육, 노동, 보건복지, 정주환경 등 시정의 다양한 분야에 메타버스 기반 행정을 펼쳐 메타버스 행정 분야에서도 대한민국의 표준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기본계획을 세운 8개 분야 외에도 디지털 동향에 맞게 메타버스 추진 방향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시는 지난 1월 정보통신과를 디지털정책과로 이름을 바꾸고 메타버스티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하며 디지털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정월박람회 '가든스테이' 예약 붐물

4월 평일·주말 객실 절반 완판
내일부터 5~6월 예약 개시

"순천만국가정원을 하루 통째로 빌려드립니다." 2023순천만국가정원에서 특별히 마련된 가든스테이가 예약을 시작하자마자 4월 주말과 평일 객실 절반이 완판되며 대박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월박람회조직위원회는 '가든스테이 순천, 살랑계(가든스테이) 예약 서비스'가 시작된 10일 오후 6시 기준 4월 주말 숙박 전실이 매진됐으며, 전체 예약률이 50%를 넘었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주말 예약이 매진이 된 만큼 매일 1일에 3개월분의 예약 신청을 받겠다는 당초 계획을 앞당겨 5~6월에 대한 숙박 예약을 15일부터 선 오픈할 계획이다. 가든스테이는 2023정월박람회의 주요 콘텐츠 중 하나로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에서 낭만 가득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관광·체험·숙박·가든이 결합된 최상의 웰니스 프로그램이다. 총 35개의 캐빈형 숙박동에서 하루 100여 명이

머무를 수 있다. 숙박동은 전체가 삼나무로 지어져 은은한 향을 뿜어내고 벚꽃, 튜lip, 양귀비, 청보리 등 봄꽃과 어우러져 정원에서의 특별한 하룻밤을 선사한다. 뿐만 즐거운 게 아니다. 순천에서 나는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한 순천형 'K-FOOD DINNING' 코스 메뉴로 와인 또는 지역 전통주를 반주로 즐길 수 있는 '순천만찬'이 준비되고, '순천만아침'은 순천의 향요리로 만나는 아침 밥상이다. 만찬은 숙박 요금에 포함돼 있다.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야식도 준비돼 있다. 부담없이 순천여행은 가볍게 출발하면 된다. 가든스테이에는 2023정월박람회 2일간의 입장권이 기본으로 제공되며, 박람회 기간에는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 또한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조직위 관계자는 "가든스테이는 각종 방송과 SNS 콘텐츠에 노출되자마자 폭발적인 관심이 쏟아졌다"면서 "박람회 개막 전부터 많은 관심이 감사드리며 남은 기간 마무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만국제정월박람회장 '가든 스테이' 전경.

광양시 수산유통·가공 분야 어업인 지원 22일까지 신청

광양시는 '2023년도 수산 유통·가공 분야 어업인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2일까지 받는다. 올해 지원사업은 ▲수산물 소포장재 등 지원사업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 ▲수산물 분야 농사용(을) 전기요금 지원사업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수산물 HACCP 기준 시설업체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이다. 광양시는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체계 구축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이번 지원사업을 마련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오는 22일까지 사업 신청서 등을 작성해 광양시청 칠강항만과 해양수산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필요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병기 광양시 해양수산팀장은 "급변하는 수산 식품 시장변화에 대응하고 소비 경향에 맞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시 지역 수산특산물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규사업 신청과 발굴에 힘써 지역 특화 맞춤형 지원으로 수산 유통·가공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고흥군 과역면에 공중목욕장 준공식

고흥군은 최근 과역면에 공중목욕장 준공식을 했다. 이번 과역면(212-8번지)에 준공된 공중목욕장은 지역 12번째 목욕시설이다. 과역면에는 목욕장이 없어 주민들이 목욕장을 이용하려면 인근 읍면까지 차를 타고 가야하는 불편을 겪었다. 군은 이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비 8억1500만원을 들여 공중목욕장을 건립했다. 지상 1층, 총 179.37㎡ 규모이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

공중목욕장은 지상 1층 건물에 온탕, 냉탕, 탈의실, 찜질방 등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용료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중증 장애인은 무료이며, 장애인·아동(만 12세 미만)·노인(만 65세 이상)은 1000원, 일반 주민은 2000원이다. 공영민 고흥군은 "공중목욕장 신축으로 주민들이 행복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기쁘다"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맞춤형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

보성군 해양수산 예산 1373억원 신청

수산조정위원회 열어 심의
전년 의결액 대비 330% 증액

보성군은 지난 10일 2023년~2024년도 해양수산사업 심의를 위한 수산조정위원회를 열었다. 보성군 수산조정위원회는 김규용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며, 지역 어업인 대표와 유관기관 수산 전문가 위원 15명으로 구성됐다. 2024년도 보성군 해양수산사업 예산 신청 금액은 국·도비 포함 25종 45건 1373억원 규모이다. 이는 전년도 심의 의결 사업비 319억원보다 330.4%(1054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위원회는 읍·면이 신청한 사업과 군에서 추진 예정인 사업의 타당성 여부, 해양수산사업 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어장·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등을 심의했다. 2023년도 사업으로는 어선 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등 28억여 원 규모 총 18종 사업을 확정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또 2023년 어장정화비 실시계획(160건 773ha), 2023~2024년 어장·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22건 243ha) 등을 검토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심의를 통과한 예산안을 오는 27일까지 전담도를 거쳐 중앙부처에 발송하고, 중앙부처에서 최종 예산을 배정하면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대상자를 확정해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과 해당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여수 '영취산진달래축제' 4년만에 4월1~2일 개최

여수의 대표 봄꽃 축제인 '영취산진달래축제'가 2019년 이후 4년 만에 열린다. 축제는 4월1일부터 2일까지 흥국사 산림공원 및 영취산 일원에서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축제' 주제로 개최된다. 4년 만에 개최되는 만큼 행사 규모를 확대하고 자연친화적 프로그램 운영 등 체험프로그램도 더 다양해진다. 축제는 1일 오전 11시에 흥국사 산림공원에서 펼쳐지는 산신제로 시작하며 오후로 이어지는 개막식에는 유명인의 축하공연이 열린다.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장기자랑을 진행하는 '진달래 꽃뿔 선발대회'는 행사장의 흥을 한껏 돋울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진달래 군락지 봉우재에서는 자연 속에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이색적인 산상음악회와 진달래를 주제로 한 화선 부치기, 꽃길 시화전, 캘리그라피, 플로깅 등 각종 체험행사가 마련된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2019년 이후 첫 대면행사인 만큼 교통·질서 유지 등 안전에도 힘쓰겠다"며 "봄꽃 향기로 가득한 여수에서 여유로운 휴식과 함께 좋은 추억 남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

곡성 5미, 밀키트로 즐기세요

11개 간편식 개발 시연회

곡성 5미(峠)를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우리 동네 먹거리 밀키트'가 공개됐다. 곡성군은 최근 '우리동네 먹거리 밀키트 시연회'를 열고 11가지 다양한 음식을 소개했다. 곡성에서 경쟁력을 갖춘 음식점 9곳이 참여한 이번 시연회에서는 지역 캠핑장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11가지 음식을 만들어냈다. 곡성개발정식과 함께 매운탕, 석곡흑돼지 석쇠구이, 도란들깨탕, 능이 닭곰탕, 떡볶이, 떡갈비, 갈비탕, 해물 찜닭구이, 다슬기 수제비, 해장국 등이 이름을 올렸다. 참여 업체들은 기존보다 조리 과정을 간편화하

고 가격 효율을 높였다. 이들 간편식은 보안을 거쳐 최종 상품화된 뒤 오는 4월부터 소비자를 만날 예정이다. 하루 전 주문하면 지역 캠핑장을 이용하는 당일 밀키트 상품을 받을 수 있다. 곡성 '우리동네 먹거리 밀키트' 정보는 곡성문화관광 홈페이지(www.gokseong.go.kr/tour) 등에 게재할 계획이다. 지역 캠핑장과 관광 안내소 등에도 홍보 책자를 비치한다. 이상철 곡성군은 "밀키트 개발이 완료되면 야외에서 접하기 힘든 곡성 유명 음식들을 캠핑장에서 편리하게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kwangju.co.kr



이상철(앞줄 왼쪽 여섯 번째) 곡성군수와 지역 음식점 대표 등이 최근 '우리동네 먹거리 밀키트 시연회'를 열고 11가지 먹거리 상품을 선보였다. <곡성군 제공>

곡성군, 일상회복지원금 주민 1인당 20만원씩 지급

곡성군이 주민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씩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일상회복지원금 대상자는 곡성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3월 12일 자정 기준)으로, 영주권자나 결혼이민자 포함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오는 27일부터 6월 말까지 신청서와 신분증 등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대상자에게는 20만원의 곡성심청상품권이 지급된다. 신청 기간 읍면 행정복지센터 접수처를 상시 운영하고, 직장인들을 위해 주말 사전 예약제도 시행한다. /곡성=박종태 기자 pj@kwangju.co.kr